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내부통제 부실 일파만파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 1000여개 계좌 불법 개설 의혹 우리·경남은행 수백억대 횡령 이어...은행권 도덕적 해이 심각

최근 경남은행에서 거액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DGB대구은행에서도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은행권 도덕적 해이 및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그룹 회장이 연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 사고가 터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사태 파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은행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압축을 맞닥뜨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구은행 일부 직원은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데 사용했다.

금감원은 "고객이 실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며 감사 실시 배경을 밝혔다.

심지어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일부러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010' 대신 '016' 등 엉뚱한 숫자를 입력해 고객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수법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계좌 불법 개설에 관여한 대구은행 직원들

은 복수의 지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이 자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금감원도 감사에 착수한 이상 관여된 직원과 개설된 고객 계좌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사 결과 불법 계좌 개설이 조직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난다면 대구은행에 대한 신뢰 추락은 불가피하다.

대구은행 금융 사고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만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0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9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자본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사업 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으면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본인 실적 때문에 고객 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중은행 인가에도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은행뿐 아니라 최근 은행권에서는 연일 대형 사고가 터지며 내부통제 부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작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에 대한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겼다.

경남은행의 이 직원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가족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동원됐음에도, 경남은행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혀 걸리지 않았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

국에 달미를 잡혔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뒤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익이 66억원, 정보를 받은 은행 다른 부서 동료 및 친척, 지인들이 챙긴 이익이 61억원이다.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의 대형 금융 사고가 연일 뉴스에 나면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까 봐 우려스럽다"며 "자체 내부통제에만 기대는 시스템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춘 첨단3지구 첫 아파트

현대엔지니어링 230세대 공급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전분주택 오픈하고 분양 돌입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11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A1BL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의 전분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 첨단센터럴'은 첨단3지구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 동,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총 1520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84㎡A 1290세대 ▲84㎡B 230세대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후 29일 당첨자 발표를 진행, 9월 12~15일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광주 첨단3지구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립심뇌혈관센터 등이 들어서고, 주거·상업·교육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되는 자족도시다. 또 호남고속도로, 광주외곽순환도로, 빛고을대로 등을 통해 도심접근과 광역

교통망 이용이 편리, 향후 첨단3지구부터 상무지구까지 약 4.9km를 연결하는 최대 6차로 도로(2026년 예정)와 첨단3지구-빛고을대로 진입도로(2026년 계획)도 예정돼 있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에 맞게 세련·다채로운·편안한 삶을 뜻하는 SVC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채광·일조·통풍·바람길 등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 넓은 인동 거리도 확보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전기차주차구획 112대를 포함해 총 2161대(세대당 약 1.4대)로 계획됐다. 전기차 주차구획 28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로

배치한다. 외부에 지상 대규모 어린이놀이터와 컬러풀라자(주민운동시설), 여반라운지, 커뮤니티라운지 등 다양한 주민 휴게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한다.

1인 독서실, 스테디라운지, 북카페 등 교육시설과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 케어센터를 비롯해 운동시설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분주택은 광주시 서구 상무누리로 154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전분주택 개관

북구 신용동에 206세대 일반분양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단지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가 11일 전분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 신용동 82-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74~135㎡ 총 1647세대로, 이중 20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74㎡ B 10세대 ▲84㎡A 4세대 ▲84㎡B 4세대 ▲84㎡C 1세대 ▲84㎡D 2세대 ▲104㎡A 175세대 ▲135㎡ 펜트하우스 10세대 등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신용역(가칭, 예정) 역세권 단지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인 만

남 선분양 아파트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자 가능해 주변 여건을 확인하기 수월, 단지 배치와 상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단지는 다양한 일자리가 모여있는 광주첨단산단 출퇴근이 편리, 주거 선호도가 높은 첨단지구와 인접해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 단지 건폐율이 12.94%로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 등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 최소화했다.

단지 내 조정 공간에도 공을 들였는데, 중앙광장을 따라 각종 식재료 꾸민 테마 가든이 조성돼 단지 안에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와 실내 골프연습장, H 아이숲,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한편 청약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며, 정당 계약은 9월 11~13일간 이뤄진다. 전분주택은 광주시 서구 유촌동 361번지 일원에 마련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 투시도.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건물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카카오페이의 기부금 10억원으로 소상공인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

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 및 1층인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다.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

을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로,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